

리비아, 카다피 사태 이후 재건 사업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

1. 재건사업 실시배경 및 내용

- 내전으로 인한 각종 시설 파괴 및 원유생산량 급감으로 경제성장 둔화
 - 2011년 2월부터 발생한 내전 당시 폭격 등으로 주택 및 항구, 도로 등 인프라 등이 파괴되었고, 석유·가스 플랜트 및 정유시설 등이 손상되어 원유생산량이 급감하였음.
 -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150만 b/d('10년)에서 내전으로 인해 4만 5천 b/d('11년 8월)까지 하락
 - 또한 석유개발 기업들의 수송차와 장비 등이 약탈되어 원유 수송이 용이하지 않아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.
 - 내전으로 인한 타격으로 2011년에 경제성장률은 전년(3.3%)에 비해 대폭 하락한 -27.9%를 기록하였음.

리비아 내전 발생 배경

2011년 2월에 리비아의 제 2도시 벤가지에서 42년간 독재해 온 카다피 정부에 대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으며, 3월에 국가과도위원회(National Transitional Council: NTC)가 발족되면서 NTC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발전하였음. NTC군이 주요 물류통로 및 정유시설, 석유수출항 등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, 8월에 수도 트리폴리에 진입하여 승리를 거두고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음.



□ 5년 간 총 3,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 실시

○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(NTC)는 향후 5년 간 3,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.

- 정유시설·주택·공장 건설 등 인프라 분야 1,200억 달러, 자동차·가전제품 등 각종 상품 수입 관련 분야 1,500억 달러, 방산분야에 300억 달러로 추정됨.
- 한편, 2012년에는 정부예산(545억 달러 상당) 중 약 120억 달러를 주택 공공사업부에 배정하여 교육시설, 주택, 인프라 사업 순으로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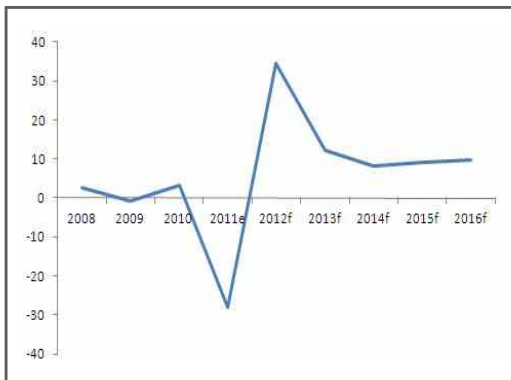
□ 재건사업으로 '2012년에 34.4%의 경제성장에 이어 '16년까지 10% 대 성장 전망

○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이 내전 이후 급감하였으나, 같은 해 11월부터 시설복구 및 생산 재개로 증가하고 있으며, 관련 외국인투자도 늘어나고 있음.

- 원유생산 재개 이후 중국은 리비아와 2012년도에 14만 b/d의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음.
- UAE의 al-Ghurair Group은 향후 4년 간 리비아 정유시설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, 영국의 BP와 Shell은 중단되었던 리비아 유전 탐사활동을 재개할 예정임.

<그림 1> 리비아 경제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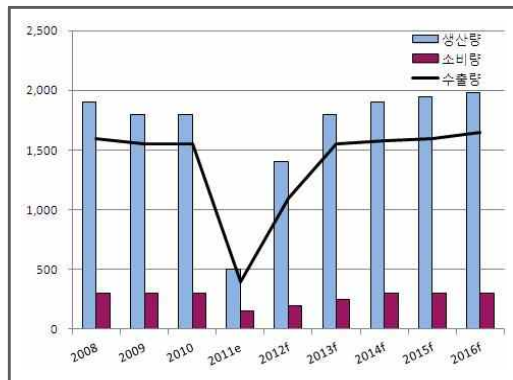
단위: %



자료: EIU.

<그림 2> 복구사업 이후 원유 생산량 전망

단위: 천 b/d



자료: BMI.



- 리비아는 대규모 재건사업과 외국인투자유입으로 2012년에 34.4%, 2013~16년 까지 연 평균 10%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
2.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전략

□ 재건사업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대 전망

- 재건사업 실시로 소비재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. 또한 리비아 국가과도 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통관 수수료(10%)를 폐지하고 자동차, 화장품, 담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입 관세를 5% 이하로 내림에 따라 수입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- 최근 우리나라의 대 리비아 수출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 품목별로는 리비아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자동차가 전체 수출의 63.4%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, 향후 수출규모*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리비아 시장은 자동차 및 가전제품, 의류와 치안 악화로 인해 당분간 보안 시스템, 의약품, 의료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- * 대 리비아 수출금액: 12억 달러('09) → 14억 달러('10) → 1.8억 달러('11) → 4.4억 달러 ('12.6)

□ 공공 인프라 등 시설복구 수요 증대 활용

- 2002~10년 리비아의 10대 프로젝트 수주기업 중 현대엔지니어링, 대우엔지니어링, 성원건설이 각각 2, 3, 10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건설기업은 리비아 건설시장의 1/3을 점유해왔음.
- 한국기업들은 현지에서 플랜트, 주택,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재건사업 관련 진출 가능성이 높음.
 -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는 현대건설, 대우건설, 현대 엠코 등에 주택, 도로, 병원, 교량,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.
 - 2012년 3월, STX중공업과 리비아 북부의 토부르크 지역 정부와 발전, 담수, 철강, 화학, 시멘트 등 각종 플랜트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고, 2012년 10월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.



<표 1> 국내기업의 리비아 건설 수주 현황

건설사	공사내용	수주액(억 달러)	공정률(%)
대우건설	미수라타 복합발전소	5.4	97
	벵가지 복합화력발전소	4.7	98
	즈위티나 복합화력 발전소	4.4	0
신한건설	자위아시 5,000가구 아파트	8.1	19
	질리톤 주택기반시설 토목공사	4.7	2
	트리폴리 5,000가구 주택공사	4.3	14
원건설	토브룩 5,000가구 주택 공공건물	9.4	0
	테르나 1,384가구 빌라 기반시설	2.3	71
	테르나 616가구 빌라 기반시설	1.3	20
이수건설	젠텐 3,300가구 프로젝트	4.2	1
한일건설	자위아 3,000가구 주거단지	6.7	4
	사르만 1,000가구 주거단지	2.1	14
현대건설	트리폴리 웨스트발전소	13.6	0
	알카리즈 발전소	6.9	46
현대엠코	굽바시 2,000가구 주택 기반시설	4.4	17

자료: 해외건설협회(2011.8).

- 2012년 7월, 벵가지와 미수라타 등 2개 신공항청사 건설사업(550억 달러 규모)에 한화 S&C를 비롯하여 한국공항공사, 종합건축사무소, 근정건축설계 사무소 등 '네모컨소시엄'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.



-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국 분석 및 현지 이미지 제고 노력 필요
 -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 리비아 건설시장을 주도 하였던 터키와 중국의 전략과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 - 내전 발발 전 한국과 터키, 중국은 각각 리비아 전체 건설시장의 1/3씩을 점유 하였음.
 - 일부 리비아인들은 한국기업이 수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리비아 사회로의 기여는 소홀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바,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현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.
 - 내전 후 중국은 리비아에 약 790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(쌀, 식용유, 의약품 등)을 제공하였으며, 터키는 22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음.
 - 우리 정부도 2011년 7월 리비아 난민에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, 국가 과도위원회에 1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음. 기업차원에서도 식품·의약품 등을 지원하고,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건설·보수해주는 등 사회적 공헌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【박 유 정】